

2024. 3. 11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
강남농수산물검사소

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 직무대리	홍 미 선	3401-6310
수산물검사팀장	김 은 정	3435-0388
식품정책과장	양 광 숙	2133-4700
식품안전팀장	차 원 경	2133-4730
관련 누리집 (메뉴)	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## 서울시 봄철 식중독 많은 패류·피낭류 집중점검.. 수산물 검사항목도 119→177개 확대

- 가락·강서·노량진 수산시장, 마트 반입 수산물 및 학교급식 식재료 등 대상
- 3월부터 6월까지 봄철 패류·피낭류 등 식중독 유발 패류독소 집중 점검
-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 시행으로 관련 항목 검사 확대

-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을 앞두고 3월부터 6월까지 패류·피낭류 패류독소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.
- 홍합·바지락 등 패류(조개류)와 멧게·미더덕 등 피낭류는 봄철 패류독소로 인해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워 계절별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.
  -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고 마비, 설사, 기억상실 등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봄철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- 아울러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표 수산시장과 마트,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119개에서 17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11일(월) 밝혔다.
  - '22년 72개, 지난해 119개에서 올해는 177개로 대폭 늘려 더 꼼꼼한 검사를 통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.
  - 올해 추가 항목은 기존 항목(동물용의약품, 중금속, 패류독소, 미생물, 인공감미료, 방사능 등) 중 동물용의약품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.
  - 특히,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가 시행됨에 따라 항균제, 구충제, 살충제, 항원충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이 추가됐다.
    - ※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, Positive List System): 잔류기준 설정 성분은 해당기준으로 관리, 잔류기준 미설정 성분은 불검출 수준 일률기준(0.01 mg/kg 이하) 적용
- 안전성 검사 대상은 서울시 가락·강서·노량진 수산시장 반입 수산물, 마트·백화점 유통 수산물, 학교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의 유통 수산물이다.
  - 권역별(강서·강북·강남) 안전관리반이 서울시 전역의 유통 수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, 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로 판정되면 안전관리반이 현장에서 압류, 전량 회수·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.
-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수산물 검사항목 확대로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”며 “시민들의 수산물 소비트렌드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”고 말했다.

## 붙임 1. 2024년 수산물 안전성 검사항목

**붙임 1** 2024년 수산물 안전성 검사항목(177종)

물질별	항목수	항목명
총 계	177	
동물용의약품	150	항균제(69), 구충제(16), 살충제(6), 항원충제(10), 기타(33), 금지물질(16)
잔류물질	1	에톡시퀸
중금속	3	납, 카드뮴, 수은
패류독소	3	마비성, 설사성, 기억상실성
방사능	2	요오드, 세슘
식중독균	7	노로바이러스, 살모넬라,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, 황색포도상구균, 비브리오 콜레라, 비브리오 패혈증균, 장염비브리오,
위생지표균	3	세균수, 대장균, 대장균군
인공감미료	5	사카린나트륨, 아세설팜칼륨, 아스파탐, 스테비오사이드, 리바우디오사이드A
기타	3	내용량, 타르색소, 히스타민